

사역적 탁월성과 학문적 수월성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대학의 역세속화

권오병(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obkwon@khu.ac.kr

Tel: 031 201 2306

Fax: 031 204 8113

초록

기독교 대학의 세속화에는 이사진의 특성과 아울러 학문함과 사역함의 잘못된 관계성이 끼친 영향이 크다. 기독교 대학이 하나의 교회로서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달성하는 요람이며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헌신해야 함이 옳다는 전제 하에 이른바 역세속화를 위해 사역적 탁월성과 학문적 수월성은 동시에 또는 통합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에 대한 본격적인 제기와 해결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려는 시도가 그 중요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사역적 탁월성에 근거하여 기독교 대학을 분류해 보고 성경적인 학문적 수월성에 대해 언급하고 달성방안에 대해 간단히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 서론

과거 기독교 대학의 세속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재정의 자립과정에서 세속적 이사진이 구성되거나, 연구의 탁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신앙보다는 학문적 수월성을 확보한 교수를 우선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교수들의 영향력에 의하여 세속화된다는 경험적 원칙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더욱이 기독교 대학 안에서 사역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독교인 교수들이 이외로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의 주된 근거는 대학의 연구는 신앙의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세속적 연구관과 실증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적 질문은 세속화의 도전으로 정체성이 훼손된 기존 기독교 대학의 역세속화(de-secularization) 역세속화(逆世俗化, de-secularization)란 통상 사용되는 회복이라는 용어보다는 세속화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출발지점을 분명히 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세속화의 반대 정신을 지향함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저자에 의하여 새롭게 고안된 용어이다. 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역적으로 탁월하려면 학문적 수월성은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둘째, 학문적 수월성은 기독교 대학의 세속화를 의미하는가? 혹은 학문적 수월성이 세속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수월성에 도달하기 위한 세속적 방법의 도입이 세속화를 주도하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세속적인 방법이란 무신론적 세계관에 의한 연구 등을 의미한다. 또한 학문적 수월성에 도달하려는 세속적 동기가 기독교 대학의 세속화를 주도하는 것은 아닐까? 세속적 동기란 물질적 풍요, 명예 등을 더 많이 달성하려는 동기를 의미한다. 셋째, 사역적 탁월성과 학문적 수월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즉 성경적인 학문적 수월성은 가능한가?

2. 기독교 대학의 분류

오늘날 다양한 수준과 성격의 기독교 대학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독교 대학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역적 탁월성과 학문적 수월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다음 그림 1은 사역적 탁월성에 의한 기독교 대학 분류도이다. 사역적 탁월성은 다시 성경상에서 하나님 이 주신 커다란 두 가지 명령인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특정 기독교 대학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1과 같이 다섯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에 근거한 기독교 대학의 분류

[표1] 기독교 대학의 유형별 설명

유형	설명
Type A (정체)	학교 이념이나 이사진의 구성 혹은 창립자의 비전에 의하여 기독교 대학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역적 지향성을 상실한 또는 상실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는 부류의 기독교 대학.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기독교인의 상태에서 선발되며, 졸업 당시에도 대부분이 비기독교인.
Type B (성숙 지향)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대해 각성하며 성경적인 강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직장 과 캠퍼스 등 삶의 영역 속에서 성경적 삶에 대한 가르침 대로 살려는 학생들을 배출해 내는 기독교 대학. 그러나 선교사명에 대해서는 기독교 대학의 본분이라 고 생각하지 않음. 상당수의 학생들이 기독교인인 상태에서 입학하며 졸업한다.
Type C (통합)	선교명령과 문화명령 모두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은 하나 이러한 비전이 전 구성원에 완전히 공유되지는 않고 구체적인 추진력이 다소 떨어지는 기독교 대학. 상당수의 학생들이 기독교인인 상태에서 입학하며 졸업한다.
Type D (개혁 지향)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전도하고 또 기독교인 학생들에게는 제자 양육과 선교 훈 련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독교 대학. 혹은 선교 대상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사역하여 해당 국가의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대학. 그러나 교육이나 연구는 성경적 내용을 다루는 데 훈련되어 있지 않음. 선교지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기독교인의 상태에서 선발되나, 졸업 당 시에는 상당수가 기독교인. 혹은 선교헌신자들이 입학하여 선교지로 파송되는 졸업생들이 많이 배출됨.
Type E (이상형)	전 구성원이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잘 이해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 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그대로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하는 기독교 대학.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독교인인 상태에서 입학하며 더 잘 훈련된 상태로 졸업한다.

3. 성경적인 학문적 수월성

성경적인 학문적 수월성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먼저 수월(탁월)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반적인 탁월성이 곧 성공한 인생의 결정요인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창49:3)” .

둘째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탁월성이 매우 제한된 상태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으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창49:4)". 이것은 인간은 점점 더 탁월해지고 있다고 하는 진화론적 가정과 정반대이다.

셋째로, 협의의 학문적 우수성 만으로는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단1:4)".

넷째로, 수월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단1:17)".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좇지 않으면 학문은 방해자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골2:8)".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성경적인 학문적 수월성의 유익은 첫째,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본질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며, 둘째, 사역적 탁월성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셋째, 사역적 탁월성으로의 동기를 부여함에 있다.

성경적인 학문적 수월성과 사역적 탁월성의 조화를 이룬 인물의 예는 성경에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있다. 그는 동시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감성의 소유자였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스10:1)" 또한 다니엘은 전인적인 탁월성으로 정치 및 행정을 수행했던 자이다. 신약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아볼로가 있다. 아볼로는 학문에 능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탁월하게 하였다 (행18:24).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다.

4. 성경적인 학문적 수월성 달성 전략

성경적인 학문적 수월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성경적 연구를 지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학술지와 학술대회가 필요하다.

둘째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성경적인 학문적 수월성을 도달하려는 연구자들 사이의 공동연구를 이룬다.

셋째, 자신의 연구 내용이 성경적인지에 대한 확인을 한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므로 그곳에는 큰 연구 대상이 나올 수 없다.

넷째, 성경적인 학문적 수월성을 제고하는 것을 격려하는 여건을 조성한다.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 대학 내부에서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사역의 현장에서도 연구한다. 보통 연구와 문화명령, 연구와 선교명령을 분류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연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문화명령이나 선교명령을 희생하거나, 역으로 명령을 잘 수행하다 보니 연구할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면 사역의 내용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에스라였다. 그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스7: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율법과 규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섯째, 기독교 대학 안에서의 교원 평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5. 결론

기독교 대학의 역세속화를 위해 시급한 일 중의 하나는 사역적 탁월성과 학문적 수월성이 상호 보완적 이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볼 때 기독교 대학내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이 두 가지는 서로 관련이 없거나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본 글에서 과연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특히 만약 사역과 학문의 수월성 추구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둘 사이에 파괴적 갈등은 있을 수 없으며 도리어 상호 보완적일 것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 하에 성경적인 학문적 수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성경적인 학문적 수월성이 실행가능하기 위해 달성 전략을 나열해 보았다.

이 글에서 제기하고 있는 역세속화의 이슈는 기독교 대학이 주님께 역동적으로 사용되어 지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